

“지방 성장 동력 붕괴” 비수도권 거센 반발

수도권 규제 완화 강행 ... 13개 자치단체 연대 투쟁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수도권 전 지역에 첨단산업을 비롯한 공장의 신·증설을 무제한 허용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광주·전남의 핵심 성장동력인 광산업, 자동차, 가전, 우주, 고분자 신소재 산업 등이 고사될 위기를 맞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가 지방경제를 죽이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공식화함에 따라 13개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연대투쟁을 선언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는 30일 청와대에서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수도권 산업단지에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도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산업단지 내에서는 기업의 규모와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공장의 신·증설, 이전이 허용

되며, 산업단지 외인 경우 공장 신설은 규제하되 권역별로 증설·이전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과밀 억제권역에서도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공장 증설 허용 폭이 확대되며 과밀·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 내 공업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업종도 8개에서 전 업종으로 넓혀진다.

대신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생기는 재원으로 2010년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금 설치'를 내세워 비수도권의 반발을 무마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그동안 수도권 입주가 제한됐던 자동차 부품, 항공·우주, 광산업, 전자·정보, 자동차, 생물·의약 산업, IT, BT 등 25개 첨단산업의 수도권 진입이 가능해져 광주·전남지역 첨단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광주시와 전남도의 핵심 전략

산업인 광산업, 자동차 부품, 가전, 의약·신소재 사업은 초기 인프라 구축 단계에 있는 만큼 도약을 위해서는 관련 기업 유치에 관심이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이전기업이 전무할 것이라는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다 광주·전남으로 이전을 약속했던 수도권 기업들의 무더기 투자유치 계획 철회는 물론 이전 기업의 'U턴' 현상도 우려되고 있다.

또 광산구와 함평군 월야면 일대에 조성될 광주·전남 공동국가산단을 비롯해 신·증설이 추진 중인 첨단, 진곡산단의 공동화와 광산업·금형산업·자동차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에도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전남지역은 특히 고흥 나로도에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우주·항공산업과 첨단의료 용·복합단지 조성사업, 고분자 신소재 산업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간통죄 합헌

헌재, 네 번째 결정
 위헌 5명·합헌 4명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네 번째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관련기사 8면〉

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이 위헌(헌법 불합치)의견을, 4명이 합헌 의견을 각각 냈으나 '위헌 결정'이 되려면 3분의 2인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합헌'이 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30일 탤런트 옥소리씨 등이 제기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간통죄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징역형만 규정된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 비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했다.

시각장애 안마사 합헌

형법 제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헌재는 1990년, 1993년, 2001년 간통죄 위헌소송에 대해 세 차례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또 스포츠 마사지사 등이 "일반인이 안마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법 조항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내가 스마일 퀸” 30일 오후 광주여대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2회 스마일 퀸 콘테스트'에 참가한 이 학교 스텐더디스학과 학생들이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코스피 115P↑ 사상 최대 폭등

환율 177원 ↓ ... 금융시장 모처럼 '화색'

韓·美 300억 달러 '통화스와프' 체결

한국과 미국간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의 영향으로 국내 금융시장에 모처럼 화색이 돌았다.

한국의 외환난 해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사상 최대폭으로 치솟았고, 원·달러 환율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내려앉았다.

〈관련기사 4·11면〉
 한국은행은 30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의 협상 끝에 통화스와프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미 연준으로부터 원화를 대가로 최대 300억달러 이내에서 달러화 자금을 공급받게 됐다. 그동안 달러 가뭄에 시달려온 우리나라로서는 '장대비'가 쏟아진 셈이다.

한은은 미국으로부터 받는 달러화를 재원으로 국내의 외국환은행들에 대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달러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

한국의 대규모 달러 확보 소식은 그동안 '공포'에 시달려온 국내 금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무려 115.75포인트(11.95%) 오른 1,084.72로 마감했다. 이같은 상승 폭은 사상 최대치로, 금융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개장과 동시에 1,000선을 가볍히 돌파했다.

코스닥지수도 30.46포인트(11.47%) 폭등한 296.05로 마감해 300선 회복을 눈앞에 뒀다.

또 이날 국내 증시는 상한가 839개 종목을 포함해 1천831개 종목이 올랐다. 전체 상장 종목이 1천936개인 점을 감안하면 2개 종목 중 한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는 1997년 12월26일 이후 10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으로, 통화스와프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

이와 관련, 국회는 최근 정부가 제출한 1천억달러 규모의 은행 외화차입에 대한 국가 지급보증 동의안을 이날 처리했다.

이로써 18개 시중은행은 유동성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이들 은행은 내년 6월 말까지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화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1천억달러 내에서 3년간 정부의 보증을 받게 된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다주택자 양도세 증과 2년간 한시 해제

경제·금융 종합대책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과 조치가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해제돼 6~33%의 세율로 일반과세되며 수도권 투기지역은 서울과 인천, 동두천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된다. 또 내년 예산은 6조원 안팎 증액되며 재건축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제·금융 종합대책을 다음주 중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종합대책에는 재정 확대와 세제 지원, 규제 완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 각 분야에서 그동안 거론됐던 것들이 다양하게 포함된다.

정부는 우선 추가 감세와 관련해 소득세·법인세 인하 시기를 앞당기고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매매시에 내는 양도소득세 경감 조치를 확대한다.

현재 1가구 2주택자는 무조건 양도소득세의 50%를, 3주택 이상은 60%를 내야 하는 것을 완화해 향후 2년간은

일반과세 세율로 내도록 할 방침이다. 양도세의 일반과세율은 6~33%로 새로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1천200만원 이하는 6%, 1천200만~4천600만원은 15%, 4천600만~8천800만원은 24%, 8천800만원 초과분은 33%가 된다.

또 내년부터 2년에 걸쳐 1%포인트씩 낮출 계획인 소득세 인하 일정을 내년에도 2%포인트를 모두 내릴 것으로 보이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인하할 전망이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 재정지출을 5조원 이상 확대, 경기 침체에 따른 타격이 큰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지원을 확충한다.

／연합뉴스

디스크?
 수술없이 치료하는
 척추 추나 클리닉
 청연한의원
 광주 신부지구 M타워 5층
 062-220-1111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YB운도현밴드
 광주콘서트

2008. 11. 29 SAT 7:30PM, 30 SUN 5:00PM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공연문의 062-220-0541, 1588-0766
 티켓구매: 티켓마루, 티켓링크, 옥션티켓